

# 근본경험

‘깨어있기’와 오인회悟因會(깨어있기 참가자들의 후속 모임. 다양한 연습과 대화들이 이어진다) 공부를 통해 개념과 경험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 ‘안다’는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본질이 아니라는 증거이다(1부)

| 나무 | 오인회 편집부 인터뷰 |

대학 졸업 후 방송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했던 나무님은 10여 년 전, 한 명상 프로그램을 계기로 의식 탐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깨어있기 프로그램을 만나며 의식 발생의 전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통찰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러한 경험은 자신의 하루하루에 보다 더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깨어있기 과정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통찰하였으며, 그 경험과 통찰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편집자 주).

편집부(이하 편) : 미내사클립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나무(이하 나) : 예전에 정신세계원이란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명상영어란 강좌를 들었는데, 그곳 한켠에 <지금여기> 미내사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편 벌써 오래전 일이네요?

나 네.

편 그전부터 정신세계 관련해서는 관심이 있었나봐요?

나 전혀요. 훗훗...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런 책자에 관심 가졌던 정도? 현상과 본질이 어떻게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생각만 많아지고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대학교 때나 사회생활 할 때 명사

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삶의 지혜를 녹여낸 에세이를 즐겨 봤어요. 그것이 개인적으론 일상에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편 그럼 그 강좌에선 어떤 내용을 다뤘나요?

나 지금 기억나는 건, 순수의식체험이라 해서 까맣게 그려진 원을 계속해서 보며 투명한 빛이 체험되는 그런 거였어요(깨어있기 식으로 표현하자면 투명한 주의 느끼기?),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가졌는데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공부하며 체험을 나누었어요.

편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신적인 변화가 좀 있었나요?

나 네. 뭔가가 조금씩 시각변동은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일주일에 한번, 1년 정도 모임을 가졌었는데, 존재의 근원이란 것이 뭔지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모임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보며 걷는 중이었죠.

그전에는 뭔가를 해서 가져야 되고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다보니 뭔가가 채워져도, 지나면 다시 부족감을 느끼곤 했었는데 ‘아,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거구나’라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나서는, ‘가져야 되고 해야 되고’와 같은 마음이 크게 자리 잡지 않더라고요.

편 존재 자체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그때 이해되고 체험되신 건가요?

나 네. 그러면서 그전인가 그 후인가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밖을 보는



데,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는 순간, ‘사랑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저절로, 그냥, 이유도 없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게 뭐지?’ 하면서 눈을 비비고는 다시 봤어요. 그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허름한 행색의 사람들도 있었고 고민에 찬 얼굴도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민에 차있나? 저 사람은 행색이 구질구질하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이나 판단이 들었는데, 그냥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전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비비고 봤는데도 그런 모습이 계속 저절로 올라와지고 있어서 ‘아, 이런 것이 그냥 사랑이 저절로 올라와 진다는 건가?’ 그런 식으로 몇몇의 체험이 간간이 있었어요.

편 그렇군요. 그럼 미내사클립에서는 강좌를 수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나 하나 있긴 있었어요. 순일 프로그램이라고, 그 프로그램 중 ‘참회’라고 하는 1단계 프로그램에만 참여했던 적은 있었어요..

편 참회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나요?

나 쉽게 얘기하자면, 정해진 주제를 품고 자신의 지난 행동을 계속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던 것,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 잘해줬던 것.’ 이걸 주제로 본인이 참회대상을 정해 1주일동안 계속 떠올리면서 참회하고 감사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 이 참회프로그램이 잘 맞았어요. 밤낮으로 6박 7일 동안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아,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상대는 이리이러한 모습이었고 이리이러한 의도였을 텐데, 내가 내 것을 투사시켜서는 오해하고 착각했던 거구나.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아프게 한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되돌아보아지더군요, 나의 잘못, 착각들이.... 그러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지는데, 부모님과과의 관계에서 제가 왜곡하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제대로 보이더군요.

그동안 부모님은 부모님의 방식대로 자식인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셨고 줄 수 있는 만큼 정말 다 주셨는데 자식인 저는 ‘내 부모’라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그 이유로, 부모님의 사랑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짝 보여지면서 ‘내 것을 그냥 부모님께 덧씌워 부모님 탓을 하고 있었구나’. 원래가 잘 웃고 눈물도 많은 타입인데 그때 6박 7일 동안 정말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되돌아보아짐이 되면서 뭉쳐있던 감정적인 에너지가 눈물로써 많은 부분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보이던 것들도 좀 보이고 체험 같은 것들도 조금 일어났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핵심적인 통찰로는 이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편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여기 책자를 본 것은 정신세계원 다닐 때 봤다고 하셨는데, 미내사클럽에서 강좌 수강하신 것은 백일학교가 처음이었네요?

나 네. 처음인거죠 2년 전이.

편 백일학교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나 그 즈음 제가 일을 하면서 ‘나’라는 것이 많이 강해져 있었어요. 나라는 것이 강해져있으면 스스로 힘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휴식휴



가 겸해서 한 달짜리 정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미내사의 백일학교를 봤어요. 백일이란 기간이 조금 부담되긴 했지만, 여기서 그 동안의 것을 정리도 하고 쉬기로 하자는 식으로, 사실 쉽이 더 중심이 된 선택이었어요. 직업 자체가 프리랜서 성격이 강해서 시간적 여유는 낼 수 있었거든요.

편 백일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고 무엇을 배우셨나요?

나 산책, 식사준비, 잡초 뽑기 등 일상적인 하루의 일을 하면서, 선생님이 정해놓은 20여 가지 주제 중 각자 하나의 주제를 품고 매일을 생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나누고요. 그런데 저는 백일학교 커리큘럼을 대략 보기는 했었지만, 휴식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선생님이 몇 년 전에 하셨다는 통나무집 프로그램이나 일정시간 동안의 묵언수행 같은 것을 그리고 있었기에, 초반 백일학교 생활에 거부감이 좀 컸었고 괜히 왔다는 후회도 있었어요.

편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 네. 만약 나라는 것이 강하지 않은 때였다면 그대로 수용했겠지만, 내 주장이 한창 강해져있던 때라 저항감이 컸어요. 그래서 초반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하는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있자, 하고서 마음을 돌려 먹었죠.

편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았고요?

나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이도 있는데다 나라는 게 많이 강해져 있던 때니 말로는 아니라도 몸짓으로 다 나오죠. 그러다 50일쯤 됐을 때 자

퇴를 하고. 훗훗….

편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 그것은 아니었고요, 백일학교 한 달 쯤 지났을 무렵 ‘자연에 맡길기’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는데 마지막 날에 ‘쉼이란 것은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런데 왜 내가 밖에서 찾으려고 했지?’라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1, 2주 지나며 ‘하루하루 생활하며 발견되는 것들을 통찰로 연결시키는 것은 서울에서의 내 일상에서 이어져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중간에 올라오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8개월쯤 지나 오인회 화요모임에 참여하게 됐고, 오히려 이것이 내 스타일이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뭔가 통찰이 올라오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 다시 코멘트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적 여유 속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안에서 삭혀지고 묵혀지는 과정이 있는 오인회가 저에겐 낫더라고요. 백일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아침저녁으로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 성지님 같은 경우는 쑥쑥 수용이 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심층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걸로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헛갈리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십일 동안 아무 배움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편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살펴보다 보니까, 핵심적인 것은 이미 선생님이 짚어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느 날엔, 뭔가 그 날도 주제삼아 살펴보던 중이었어요. 함양에 앵두관 거실 안쪽 벽



에 기대어 앉아있는데, 그 전체 공간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어? 저 냉장고 책장 테이블이나 마찬가지로 ‘나’도 재네들과 다를 게 없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냉장고, 책장, 테이블 등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데, 그러다 그것들의 놓여있음이, 그 공간의 비어있음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즉 그 비어있음이 없다면,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물들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또한 이 공간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비어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나’도 그냥 대상 중 하나네’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편 우연하게 그런 느낌이 들었었나요?

나 네. 그날 그 공간이 눈에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게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도 텅 빈 공간에 주의가 멈출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선생님께 그날 발견된 걸 말씀드렸더니, 경험 요약해서 백일학교 게시판에 올리라고 하셨는데 계속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했죠. 어떤 중요한 경험이 있으면, 그걸 통찰로 이어가야지 경험을 그냥 경험으로 끝낸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패턴이 좀 있었거든요. 뭔가 의미 있는 체험이 있었어도 ‘아, 이런 것도 있네.’ 하고서 경험을 경험으로 끝냈지, 거기서 다시 질문을 해보면서 깊은 통찰로까지 연결시키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안내를 제대로 받은 적도 기억엔 없는 것 같고. 선생님의 경우엔, 뭔가 경험이 있으면 그걸 깊은 통찰로까지 이어지게끔 질문하며 안내해주시잖아요. 저희는 그걸 깨우는 거구요. 그러니까 저에게, 깊은 통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라 여



겨지는 것은, 선생님과 함께 했던 것이 처음이었던 거죠. 저에겐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힘들기도 했지만.

편 안내는 잘 해주시지 않나요?

나 그랬죠. 그런 후, 또 뭔가 감지 연습한다고 벤치에 앉아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들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 나무의 저 윗부분 앞은 이러한 느낌이야’ 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 만져봤을 때의 느낌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마음에서 ‘지금의 느낌이 저것의 느낌’이라 확신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볼까 해서 그 나무로 가서 직접 만져보니 180도 다른 거예요. ‘어머 다르네’ 했어요. 그런데 마침 선생님이 지나가시길래 말씀을 드렸더니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앉아서 저것은 이러한 느낌이야라고 느꼈던 것도 실제가 아닌 감지이지만, 직접 와서 지금 만져본 그것도 하나의 감지, 즉 만들어진 느낌이다.’ 라고 말이죠. 뭔가를 내가 직접 만져 느끼는 것은 ‘진짜다’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 점을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런 식으로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은 백일학교 오십일 정도의 기간 동안 선생님이 짚어주셨고요, 그것이 오인회 화요모임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공부하며 떠올려지고 다시 연결이 되더라고요.

편 그럼 백일학교 나오신 후에 얼마나 있다가 화요모임에는?

나 거의 10개월쯤? 제가 8월에 올라왔었고 작년 5월 진심직설 강의 시작할 때 나왔어요. 진심직설 강의 속에 선생님이 간간이 연습안내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 깨어있기 때 배웠던 그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진심직설 강의(강의 동영상)가 현재 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



니다. 오인회원들은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편집자 주)를 들으면서 깨어 있기 프로그램 내용이 그제야 이해되더라고요.

편 백일학교에서 있었던 체험 중에 ‘나’ 또한 바깥 사물들처럼 하나의 대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점이 파악된 건가요?

나 그냥 보다보니까요.

편 그냥 보다보니까?

나 네, 예전 프로그램을 통해 검은 원을 보며 그것에 주의 집중하는 걸 조금 하다보니까, 뭔가 눈에 들어오면 그것에 계속 주의가 가지는 면이 있었어요. 의식적으로 뭔가를 보는 때도 있지만,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텅 빈 공간에 주의가 멈춰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그 투명한 텅 빈으로 계속 있기도 했고요. 그러다보니 그냥 눈앞의 것들이 들어온 거죠.

편 ‘나도 하나의 대상이다’라는 체험이 왔고, 왜 그런 체험이 들었는지 정확히 인식했다?

나 그때는 확실하진 않았던 거 같아요. 비어있는 공간에 사물들이 각각 있잖아요. ‘각각이 있는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그 각각의 하나로 있다’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어, 나도 그냥 대상 가운데 하나네.’라고 느꼈죠.

편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나 네. 좀 더 확실해졌다고 할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과 밖이 따로

있고 이러한 분별에 대한 믿음이 많았는데, ‘안팎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 분별되어진 걸 믿고 있고, 그것에서 비롯된 믿음이고 현상이구나.’라는 것이 좀더 파악되니까 조금 더 의식적이 된 거죠.

편 앞에서, 눈으로 볼 때의 느낌이나 손으로 직접 만질 때의 느낌이나, ‘느낌’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것을 인식하시나요?

나 만약 깊이가 있다면 더 깊다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선생님이 짚어주시니까 ‘아 그래 맞아 이것도 느낌이지’ 했던 조금 얇은 얇이었다면, 그동안 화요모임에 함께 하면서 ‘느낌’이라는 부분에서, 직접 만지는 것은 진짜라고 믿었는데 그 또한 진짜가 아니지 하는 자각이 더 명확해졌어요.

편 그동안 감지연습을 꾸준히 하셨나요?

나 꾸준히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다보니 나도 모르게 백일학교에서 주제를 품는 것처럼 주제가 품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라는 게 뭐지? 느낌이라는 게 뭐지? 대상이라는 게 뭐지?’ 이러면서 말이죠.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내용을 보지 말고 구조를 보라, 전체 과정을 보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화요모임 초반에만 해도 당연히 그것이 안 되었어요. 사실 주체와 대상이라는 최초분열로 일어나는 그 구조란 것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지만, 좋다 나쁘다 뭐 대비된 관계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지를 계속해서 안내해주시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연결되면서 품어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느껴지는 촉각적인 느낌만 느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느낌이라는 것이 아주 폭이 넓어졌어요.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도 느낌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야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잡혔고, 듣는다는 것도 맛본다는 것도 냄새 맡아진다는 것도, 심지어 이 의식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것도 다 느낌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차리게 된 것 같아요.

편 최근에 와서 알게 됐던 거예요?

나 최근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여졌던 거죠. 선생님이 한 시간 강의하시고 또 한 시간은 오인회분들이 일주일 동안 체험한 것들에 대해 코멘트해주는 것을 비교해 살펴보며, 느낌이라는 것이 오십 정도였는데 칠십 정도로 확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느낌에 대한 인식이 넓어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안다는 것, 느낀다는 것을 따로 분별지어 알고 있었다면 ‘어, 안다는 건 뭐지? 느낀다는 건 뭐지?’ 이런 식으로 조금 기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해주셨던 것 내가 경험했었던 것들이 연결 지어지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안다는 것은 느낀다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고 느낀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었구나’라는 식의 연결 확장이 일어났던 것이죠.

편 안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나 네. 예전엔, 느낀다는 것은 신체촉각적인 느낌,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 또는 ‘어떠한 느낌이 있네!’ 이런 정도로만 국한해서 느낌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나 네.

편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인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주제가 생겼고, 그런 주제를 깊이 있게 일상에서 탐구를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나 깊이 있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편 그런 과정에서 느낌이란 것이 뭔지, 느껴진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 모든 것이 느낌이다 라고 파악했다 했잖아요. 내 의식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의 느낌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연습방법이나 나무 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나 그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게 많았던 거 같아요. ‘느껴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했다가 좀 지나면 또 아닌 거 같고 헛갈리고, 이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 다시 한 번 돌아가 생활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 연결을 시켰던 것 같아요. 요리를 하다가도 세수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탁 연결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빈 공간 쳐다보는 걸 잘해요. 그러다보면 툭툭 올라와지는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의식적으로 뭘 해야지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알려고 하는 ‘나’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그냥 가만히 빈 공간에 주의가 머물다보면, 화요강의인 진심직설에서 얘기했던 것이라든가, 누군가 얘기했던 체험들이 떠올려지고 그것이 통찰로 연결됐던 것 같아요.



편 그럼 내 의식에 떠오르는 것들, 인식되는 것들이 나의 느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나요?

나 화요모임에 참가하고 한두 달 지나서인가 제가 주의를 가지고 한동안 씨름을 했었는데, 순수하게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것에 불만이 생겨 자꾸만 주의집중 시간을 늘리려는 마음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허유 님이 그러한 저에게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데요?’라며 한마디 짚어줬어요. 그날 귀가하며 그 점이 곰곰이 곱씹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 맞다. 주의 집중되는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그것이 마음의 내용이라면) “주의집중시간이 짧다”고 단정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주의집중시간이 길었으면 하면서 “밀쳐내고 집착하고 있는 이 마음의 구조” 자체를 봐야 되는 거지’ 하는 것이 알아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의 집중되는 시간은 짧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나 투정이 없어졌어요. 짧아도 상관없고 길어도 상관없고. 그러면서 ‘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작용을 보려고 감지연습을 하는 거지**’라는 것이 떠오르더군요. 그때 그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편 아까 저 나무는 만지면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서 만졌더니 느낌이 백팔십도 달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나요?

나 네, 느낌이 달랐었죠. 예를 들어 그때 앉아서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봤을 때는,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저에게 ‘저 나무의 잎은 거친 느낌이야’라는 나무에 대한 기존정보가 떠올랐어요.

편 그렇죠.

나 제 마음에 정보가 떠오르니까, 저는 마음에 떠오른 것은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편 그것이 ‘느낌’이라는 게 명확해진 거군요. 정보라는 것, 떠오른 거니까.

나 네. 그저 저 나무에 대한 정보가 마음에 떠오른 건데.

편 그렇죠. 진짜가 아니죠. 그것이 확인된 것이군요.

나 마음에 떠오른 것은, 그것이 생각이 됐건 느낌이 됐건 감정이 됐건 진짜라고 믿는 습관이 있는데, 확인차 가서 직접 만져보니까 반대로 매끄러운 느낌이 드는 거죠.

편 만져보기 전에는 거친 느낌이 올라왔는데요?

나 네.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는 저런 모양과 저 모양에 따르는 저 느낌은, 지금 마음에 떠오른 ‘이런 거친 느낌’이었어. 저건 ‘이런 거친 느낌이야’라는 정보와 딱 연결되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기니 사실이 돼버렸고요.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마음에 떠오른 것과는 다르게 매끄러웠어요. 뭉뚱그려 추측에 의해 조합되어 떠올려진 그 정보를 진짜라 믿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의 사실이 되어버렸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달랐던 거죠.

편 직접 가서 보니까?

나 네. 앞의 모양도 직접 보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 만져보니 반대로 매끄럽더라고. 그런데 매끄럽다고 ‘그 순간 제가 아는 것’




도, 조금 전에 앉아서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마음으로 알 때 떠올라졌던 것과 똑같은 종류더라는 거죠. 또, 제가 뭔가를 직접 만지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느끼고, 그 느낌을 ‘진짜라고 믿을 때’, 그동안 그것에 대해 쌓여졌던 경험정보들이 조합돼 떠오르면서, 앉아서 봤던 그 거친 것과는 다른 느낌이 올라오니까 구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구별된다는 것 자체도 이미 느낌인 거죠.

편 직접 만졌을 때 매끄럽다는 인식도 ‘느낌’이라는 것을 그때 아신 거죠? 나 네,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니까요. 올라오는 것에 주의가 가고 주의가 많이 뭉칠수록 이것이 ‘사실로 믿어져요’. 그런데 제한된 이 감각기관을 가지고는 그것이 사실인지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각기관 자체가 이미 한정이 돼있는 거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가청범위가 있고.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었네. 그럼 이걸 다 느끼이었던 거구나. 결국, 내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이 시각적인 것이든 청각적인 것이든 촉각적인 것이든 모두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져서 아는 건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느낌이었구나’라고 말이죠.

편 그 점이 크게 와 닿으신 거네요.

나 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